



연이은 4년 최악의 작황 잇따라

편집부

2004년부터 이어지는 흉작은 금년에도 회복될 기미가 없어… 이상기온으로 인한 대체밀원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때

하늘도 무심하다. 금년 대구지방 아카시아가 필 무렵 양봉농가들은 그간 생산하지 못한 아카시아 꿀 생산을 보충이라도 하듯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고 금년에는 대 풍작을 기대하였다.

금년 대구지방의 날씨와 아카시아 꽃의 개화 상태는 최근 3년에 비하면 최고의 조건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대구지방의 꽃이 만개가 되고 난 뒤부터 이상하게도 유밀이 되지 않는데 있었다. 한낮의 높은 기온에 비해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잦은 우기가 겹치면서 겨우 정리채밀을 하고 중부지방으로 이동을 해야 했고, 일부 양봉농가들은 수분이 많은 꿀이 생산되어 꿀벌들이 벌통 앞에서 기는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역봉이 대량으로 폐사되는 현상도 발생하여 이러한 증상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협회에서는 진흥청 양봉소재과에 협조 요청하여 원인분석에 착수하기도 하였다.

그래도 양봉농가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2차 지역에서는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동을 시작하였으나 이 또한 허사였다. 이동시기에 잦은 비와 바람이 불어와 중부지역(대전, 충남, 충북)에서는 평균 1회 정도 채밀을 하고 중북부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한편 포항, 예천, 안동, 상주지역에서 유밀이 된다는 소식에 양봉농가들이 대거 몰려들어 지역 양봉농가들이 곤혹을 치르기도 하였고 마지막 채밀지역인 경기/경기북부지역, 강원도 일원에서도 최악의 작황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점은 무엇일까? 이제는 아카시아 채밀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 스스로 대체 밀원수를 개발해야 하는 시점이 도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른 지역별 브랜드화 및 유통체계를 변화하는 계기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작년은 아카시나무 황화현상 때문에 채밀이 어려웠지만 올해는 외적인 환경도 그리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수준을 밑도는 채밀량을 기록할 것 같아 양봉인들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최근엔 미국에서 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환경오염에 뒤따르는 이상고온 현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세계 곳곳에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식약청에서는 금년부터 항생제 및 농약잔류기준(9가지 잔류검사 기준마련)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양봉농가들은 사양관리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다.